전법 일기

‘낙하산’은 고공낙하의 생명줄 장병에겐 군종장교가 ‘낙하산’

두 번째 소임지는 특수전학교.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특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군사학교이다. 다음 부대에 배치 받기 전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에 3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단련된 체력을 가지고 두려움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기대감으로 특수전학교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공수교육훈련이라는 첫 번째 관문이 있다. 특전사 요원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공수교육훈련은 특전부사관 후보생뿐만 아니라, 육사 생도, 3사생도, 학사 장교, 특전용사 등 다양한 신분이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이 부대에 가기 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되새기며 그 마음을 다잡았다. 그 생각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망이었음을 3주간의 공수교육훈련을 마치고 알았다.

3주간의 공수교육훈련에 입교하게 되면 신분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이 훈련생으로 통한다. 군종장교 또한 예외는 없다. 특수전학교에 전입을 7월 중순 공수교육훈련에 입교하였다. 더운 날씨 속 입교 첫날 오전부터 뜀뛰기 5km가 진행됐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교관들과 공수 동기들이 독려를 해주었다.

돌아보면 아침의 뜀뛰기 5km가 가장 걱정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달리기의 취미를 붙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2주간 지상에서 열심히 뛰고 구르며 몸에 익히는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됐다. 지상훈련 중 꽃인 착지동작은 다리가 땅에 닿기만 하더라도 착지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2만번 이상의 착지 연습을 반복 숙달을 하였다. 입교하기 전 호국백마사 간부 신자의 조언이 떠올랐다.

“공수교육은 체력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니시면 버텨 내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어느덧 2주간의 지상 훈련을 마치고 자격강하 4회를 하는 3주차가 되었다. 첫 번째 강하 하던 날은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은 날이다. 지상에서 300m 높이에서 낙하산에만 의지하여 스스로 뛰어내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낙하산이라는 것이 나를 지탱해주어 뛰어내릴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군종장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사회에서의 낙하산이라고 하면 부정적 바라보는 시각이 짙은데, 이면으로는 군인들에게 낙하산 같은 존재가 바로 군종장교이다.

말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모습에서 우러나온 무형전력 강화였다. 위험성 훈련과 대부분의 훈련 때 앞서 안전기도와 격려를 하는 것은 물론 동반강하를 하며 동질감 형성을 통한 무형전력 강화에 앞장서야 함을 잊고 있었다.

이는 부처님의 혜명을 받아들여 사명감을 가지고 장병 중심, 현장 중심의 존재감 있는 군종활동을 통해 장병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군종 법사로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



수종 스님
육군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⑨ 진묵대사의 오도송

천지자연과 하나됨을 노래하다

하늘을 이불 삼아 땅 위에 누웠노라

하늘을 이불, 산을 베개 삼아 땅 위에 누웠노라(天衾地席山爲枕)
달빛 등불 구름 병풍 아래서 바닷물을 술로 생각하고 마시네(月燭雲屛海作樽)
거나하게 취하여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니(大醉居然仍起舞)
긴 소매 곤륜산에 걸릴까봐 저어되네(却嫌長袖掛崑崙)

임진왜란이 끝나고 처절하게 고통 받는 민중을 구원한 조선의 소석가(小釋迦) 진묵 대사의 오도송이다. 그가 남긴 유일한 이 깨달음의 노래가 부여 무량사 법당 앞의 주련(柱聯)으로 걸려있다.

진묵 대사(震默大師, 1562~1633)는 김제군 만경면 불거촌(佛居村)에서 태어났다. 불거촌은 진묵 대사와 같은 고승을 낳았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어린 나이에 전주 봉서사에 출가하였다.

진묵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산과 사명과 같이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호국불교의 대열에 서지 않았다. 전란 후 인구는 3할이 감소했고, 토지는 7할이 황폐화된 나라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준 대승보살이었다. 부처의 자비를 현실사회에서 몸소 실천한 민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 명리와 격식의 옷을 벗어버린 걸림이 없는 탈속(脫俗)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려 말 나옹 선사와 더불어 석가모니의 후신불로 평가받고 있다.

임진왜란 고통 받던 대중 치유
오도송 ‘호연지기’ 詩 중 절창
민중 희망 주는 제2 진묵 기대

진묵 대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의 기록이 없다. 구전으로 전설과 설화문학으로 전해오다 그의 사후 200여 년이 지나 조선말에 초의 의순 선사(1786~1866)에 의해서 그의 삶의 궤적을 모아 최초로 편찬한 〈진묵조사유적고〉에 의해서 진묵 설화가 문자화되었다.

진묵 대사의 오도송은 승속을 망라하여 대장부의 호탕한 마음인 호연지기를 읊은 시 가운데 최고 절창이다. 기구(起句) “하늘을 이불 삼고 산을 베개 삼아 땅 위에 누웠노라”는 깨달음의 마음이 천지자연과 하나가 된 우주심, 대아심(大我心)의 경계를 읊은 것이다.

고려 때 혜심의 〈무의자시집〉(우리나라 최초의 선시집)의 “하늘을 천막 삼고, 땅을 자리 삼아, 산으로 병풍 삼고 바위로 벽을 삼는다(天幕山爲席 山屛石爲壁)”의 시구를 용사(用事)하였다. 진묵 대사의 우주 천지심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승조 스님이 〈장자〉를 읽고 “천지와 땅은 같은 뿌리이고, 세상 만물은 하나”이라고 용해·요약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진묵 대사의 고향 김제 금산사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고,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주민에게 우물물을 파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모습을 보여준 월주 스님의 좌우명이기도 한다.

오도송은 불립문자를 주장하여 고정관념이나 격식에서 벗어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일반 한시처럼 운율이나 고사(故事)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구애되지 않는다.

승전결구에서 “바닷물을 술동이 삼아서 마시고 취하여 춤을 추니 긴 소매가 중국에서 제일 높은 곤륜산에 걸릴까 봐서 염려된다”고 대장부의 자적(自適)하고, 걸림이 없는 무애심(無碍心)을 읊고 있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급격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렵다. 나라의 위기요 불교의 위기이다. 지금 국민은 한 마음으로 공명조(共命鳥) 의식으로 고통 받는 백성과 함께 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2의 진묵을 소망한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두 명의 출재가자 부고에 부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 두 명의 부고가 들렸다. 한 명은 ‘사형수들의 대부’ ‘재소자들의 부루나 존재’로 불렸던 삼중 스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가진 불자 정치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었다. 스님과 재가자의 부고를 정리하고 나니, ‘가장 낮은 곳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중 스님은 1976년부터 대구교도소를 시작으로 재소자 교화 활동을 펼쳤다. 당시에 교도소에는 목사와 신부들은 선교를 했으나, 스님은 전무했다. 대구교도소에서 법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삼중 스님은 한달음에 달려가 법사 직을 수락하고 교화활동을 펼쳤다.

말년에 삼중 스님은 심부전증으로 인해 이틀에 한번 혈액투석을 하면서도 사형수들을 위한 전법·교화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장기표 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수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다.

1990년대부터 7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고, 세 차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마지막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고인이 말년에 주장한 ‘신문명적 정치’의 기반에는 불교가 있었다.

삼중 스님은 300여 명의 사형수를 만나 그들의 마지막 길을 지켰고, 장기표 원장은 재야에서 민중들과 민주주의를 꿈꾸며 함께 거리에서 투쟁했다.

모두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두 출재가자의 삶에서 종교인이서 있을 자리를 만났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찰나 실수로 부서진 어깨뼈와
무너져버린 고향의 가족

네팔노동자 바하두르씨, 가족 생계 위해 농장 · 공장일 등
수술 후 월세방 더부살이…남은 건 병원비와 빚 7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